

## ※ 별첨: 보고서 1부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1) 유학생 보험

빅토리아 대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Guard me’라는 캐나다 의료보험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안내해줍니다. 파견 학교에서 지정해준 프로그램이지만 캐나다 자체보험이라 유학생 보험을 안전하게 따로 들고 싶으시다면 마이뱅크, KB, 현대해상 등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가격과 항목별로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험 가입일은 항공권 기준으로 출국 첫날과 입국 날짜를 맞춰서 가입했습니다.

##### 2) 비자

캐나다 비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비자를 정리해보자면

1	거주 기간 6개월 이내	관광비자 eTA
2	6개월 이상 학업을 위한 거주	학생비자 eTA
3	워홀	워킹홀리데이 비자
4	교육기관 등록 후 인턴십까지 가능한 비자	코업 비자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한 학기만 다녀오실 경우 관광비자 eTA만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다녀오실 경우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 종류에서 선택해야하고, 학생비자는 서류제출 과정과 발급 기간이 길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합니다.

<https://www.canada.ca/fr/immigration-refugies-citoyennete/services/visiter-canada/ave/mande-ko.html> 비자 발급 사이트이며, 한국어 설정도 있으니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기준 CAD 7달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나다 교환학생 과정 중 미국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거나, 빅토리아까지 가는데 직항 항공권이 없기에 시애틀 경유를 하게 된다면 미국 비자 신청도 필수이니 (경유만 하는데도 비자발급 필수입니다.) ESTA 발급도 받으셔야 됩니다. 발급 신청비는 \$21입니다.

### 3) 항공권

빅토리아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직항 항공권이 없습니다. 경우 항공권으로는 크게 밴쿠버 or 시애틀 경우 항공권으로 나뉩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4가지 탐색 과정을 거쳐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1	구글 시크릿 모드 > 스카이 스캐너
2	네이버 항공권 구매
3	공동구매 항공권 탐색
4	ISIC 카드 소재 시 항공권 할인

\*ISIC 국제학생증 카드는 교환학생 준비한다면 꼭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에서 ID요구할 때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미술관 등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방법은 ‘키세스 항공 예약’ 카카오톡 상담문의로도 빠르게 내가 원하는 날짜 및 가격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학생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나. 필요 물품 (짐꾸리기)

빅토리아는 캐나다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띠는 성격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학기 지원에 따라 챙겨야 될 옷 종류가 다르지만, 겨울에는 굳이 롱패딩이 필요하진 않을 정도입니다. (눈도 잘 안 내리는 기후) UVIC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이 많아 노트북은 필수이며, 따로 지정 교과서가 없는 대신 제공되는 유인물이 많아 파일 보관함이나 아이패드도 챙겨가는 것을 권합니다. 캐나다와 우리나라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어댑터 변환기(돼지코)는 필수이며 드라이기나 고데기 등 부피 차지하는 전자제품은 코드 전압을 고려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가 공식 언어입니다.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에 프랑스어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어 발음은 미국식 영어와 동일하며, 다만 UVIC 선생님들 중에 영국에서 오신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다면 영국식 발음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문화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캐나다 오시면 상상 이상으로 인도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습니다.

물가는 한국의 1.5~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팁 문화도 존재하는데, 점심은 주로 음식 값의 15~20%, 저녁은 18~2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카페나 빵가게에서는 테이크아웃이면 굳이 안 내도 됩니다. 특히, 팀홀튼과 스타벅스는 내지 않으셔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세금 비율이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먼저, 제가 교환학생 대학 국가를 ‘캐나다’로 선택한 이유로는 영어 스피킹 실력을 너무나도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총기소지 걱정이 없고, 최애 드라마가 ‘도깨비’였기 때문에 캐나다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캐나다 교환학생 학교가 빅토리아 대학교, 구엘프 대학교 총 두 곳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캐나다 BC주의 수도이고, 캐나다에서 가장 기후가 온화한 지역 중 하나로 뽑히며 관광 명소가 잘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나-2. 공항 - 학교

빅토리아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30분, 버스로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통 대부분 홈스테이를 신청하시면 호스트 분들이 픽업하러 오시기에 미리 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UVIC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커리큘럼이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첫 날 등교하면, 각자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급으로 반배정이 됩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고 Academic(writing, reading 등 영어 문법 과정에 더 집중적)과 General(일반 speaking, conversation에 더 집중적) 과정으로 또 나뉩니다. 한 반에는 적으면 10명 내외, 많으면 2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수업내용은 전반적으로 writing, reading, speaking, grammar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총 선생님을 2분 지정받게 되는데, 선생님마다 담당하시는 파트가 다릅니다. 저는 General 과정 수업을 들었는데, 조별로 묶어서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수업과정이 많았고, 영어로 의견말하기에 집중적이었습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UVIC은 신청할 때 홈스테이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홈스테이에 머물게 되며, 신청서 작성할 때 취향, 성격 등 따로 작성사항이 있으나 배정은 랜덤 배정입니다. 홈스테이는 여학생만 받는 홈스테이, 남학생만 받는 홈스테이로 나뉘고 한 홈스테이에서 최대 4명까지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1시간 이내 걸리는 지역으로 배정되며, 호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 바꿀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적어도 1달..)

### 나-5. 교내•외 활동

UVIC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coffee social 활동이 있습니다. 교내에 Culture Assistant 줄여서 CA라고 불리는 UVIC 학생들이 있는데, CA들이 주로 활동을 준비해줍니다. music bingo, 노래방활동, 게임시설, 포토부스, Kahoot, 보드게임 등 매주 정말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있고, 야외 활동으로는 야구, 축구 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반에 동아리 모집 활동이 있는데 ELPI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동아리 가두모집 때 다녀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UVIC은 학교 자체가 원형으로 설계되어있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기에도 편하고,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버스타고 학교에서 출발해서 업타운, 다운타운, 시드니, 바다 등등 버스타고 이동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다만 교통이 버스, 택시뿐이라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스카이트레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체계가 잘 잡혀있고, 학교에서 버스크카드도 나누어주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이용가능) 정말 편리합니다.

음식은 홈스테이 마다 다릅니다. 제 호스트분들은 보통 아침은 시리얼, 과일, 베이커리 종류로 챙겨주셨고, 점심은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다같이 식사했습니다. 주로 저녁이 메인식사였습니다. 어떤 호스트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점심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챙겨야 되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밴쿠버 > 빅토리아 시드니 페리 선착장에서 FRS 페리를 타고 밴쿠버 Tsawwassen Ferry terminal 까지 왕복 \$40, 1시간 30분 만에 가실 수 있습니다. 페리선착장에서 바로 나와 620번 버스를 타고 스카이트레인까지 타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플레이스, 개스타운, 다운타운, 스탠리파크, 밴쿠버 아쿠아리움, 트와이스 뮤비 촬영지 등 2일이면 충분하게 돌아보고 올 수 있는 일정이라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밴쿠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애틀 > 빅토리아 다운타운 페리선착장에서 페리를 타면 3시간 30분 만에 미국 시애틀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고 다운타운에서 시애틀 관광지 주변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행기보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페리 타임테이블이 시애틀 분들을 위해 짜여진 시간이라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나, 페리로 미국을 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first starbucks, 스타벅스 리저브, 아쿠아리움, 대관람차 등등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해있습니다. 지하철, 모노레일, 버스 등 교통수단이 잘 되어있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관광지는 치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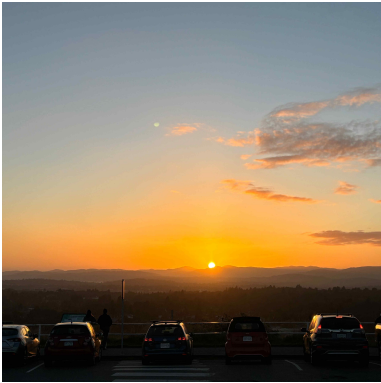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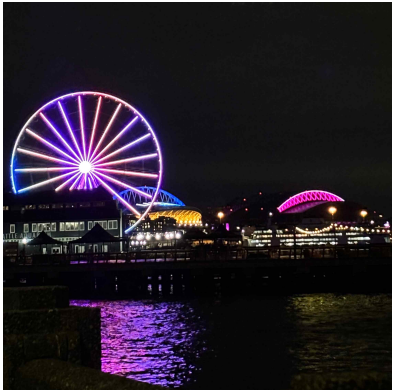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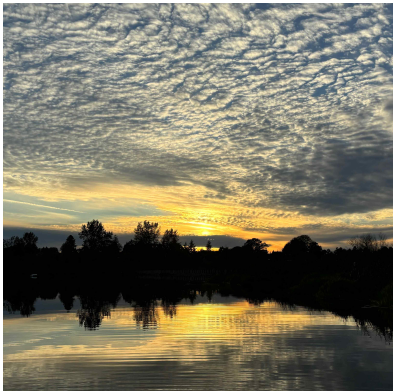

리 유리공예 가든입니다. 정말 전시가 잘 되어있고, 작품도 멋져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클램 차우더가 유명하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밴프 > 빅토리아 공항에서 캘거리 공항에 간 다음 셔틀버스를 타고 밴프에 갈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에메랄드 빛 호수를 감상하실 수 있고, 겨울에 가시면 눈 덮인 숲속마을 윈터 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는 왕복 20만원대 정도이며, 왕복 셔틀 버스비도 5만원 이내로 구매 할 수 있어서 록키산맥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알버타 스테이크가 유명하고, 운이 좋으면 오로라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로라 볼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화이트홀스나 옐로우나이프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외에서 학생신분으로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영어 공부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UVIC 교환학생 꼭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도시 자체가 너무 온화하고 차분하고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잘 되어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곳입니다. 학교 커리큘럼도 너무 체계적이고 시스템도 잘 되어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다녔던 곳입니다. 가기 전까지도 걱정 많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 많았는데, 직접 나와서 부딪혀야지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많이 성장했고 가치관도 변하고 보는 시각이 다양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Legislative Assembly of BC	CST building > 주로 수업 듣는 곳
	
교내 > 사슴이 정말 많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Mt.tolmie
	
Seattle	Halloween
	
Swan lake	field trip - Gold stream